

우하람 “한국 다이빙 알린 광주는 특별”



다이빙

9일간 5개 종목 출전 ‘톱10’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따내 김수지, 여자 최초 메달 “광주에서 한뼘 더 성장했다”

“대한민국 다이빙을 알린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밤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사진)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10m 플랫폼 결승을 마친 뒤 이번 대회 마지막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우하람은 이날 6차 시기 합계 477.25점을 받아 6위로 다이빙 종목 마지막 경기를 끝냈다.

그는 “실수가 나왔지만 결과는 만족한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대회였고 성적

도 개인 최고 성적이다. 메달 선수들과도 격차가 많이 줄었다. 내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미소를 지었다.

지난 12일 다이빙 첫 경기였던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 출전한 그는 다이빙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10m플랫폼 결승에도 나섰다.

9일 동안 우하람은 무려 5개 종목에 등장했고, 모두 ‘톱 10’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다이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1m 스프링 보드를 제외하고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에서는 도쿄올림픽 티켓도 따냈다.

1m 스프링보드와 3m 스프링보드에서는 4위, 김영남(23·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호흡을 맞춘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과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에서는 각각 6위와 10위를 기록했다.

대회가 끝난 뒤 하고 싶은 것을 묻는 말에 “늦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된 일정이었지만 우하람은 자신과 한국의 다이빙 성장세를 보여준 대회라고 기뻐했다. 우하람은 “다른나라 선수들이 보기에는 내가 힘들어 보일 것이다. 다른 선수들은 2개 정도 뛰는데 ‘몇 개 뛰냐’고 물어보



고 신기하게 본다”며 “신기해하면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대회 치르면서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느낀다. 저번 대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났고 성장했다”며 “대한민국 다이빙을 세계에 많이 알렸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다이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고국, 그리고 광주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한국 다이빙을 알렸다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하람은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

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감사하다. 덕분에 집에서 이런 응원과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다”며 “광주시민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났다. 남은 대회도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하람으로 표현되던 한국 다이빙에 ‘여성 파워’도 발휘됐다. 점도 다이빙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 이번 대회에서 김수지(21·울산시청)는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다이빙과 여성 선수 첫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가 됐다.

김수지는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에서는 조은비(24·인천시청)와 사상 첫 결승행도 이뤘다. 대표팀 최고참인 조은비는 “수지가 메달을 따면서 여자 다이빙에 관심이 많이 쏠렸다. 항상 남자에게만 관심이 편중돼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적 잘 나고 관심받아서 좋았다. 좋았던 대회로 기억이 날 것 같다”며 “광주에서 많은 응원과 관심받았다.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이빙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을 돌아봤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여운 기자 wool@

평영 간판 14년째 태극마크 국대선발전 1위 ‘제2 전성기’

광주·전남 선수 아름다운 도전 ④ ‘수영’ 백수연

50m·100m 등 4종목 출전... ‘결승 진출 목표’



광주시체육회 소속 백수연(2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평영 종목에 출전하는 유일한 여성 광주·전남 대표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 많다. 한때 그의 나이 때문에 선수로서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돌았다. 20대 초·중반이 전성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수연은 실력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5월 경북 김천 실내스포츠수영장에서 열린 2019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26초4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역시 평영 100m 결승에서도 1분08초36으로 1위에 올랐다. 이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백수연은 이번 대회 출전권도 어렵게 손에 넣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위에 올랐지만, FINA가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인 A 기준기록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내 선수 중 A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는 김서영(25·경북도청, 우리금융그룹)과 임다솔(아산시청)뿐이다. 이 때문에 대한수영연맹은 종목별로 FINA 기록에 약간 못미치는 대한수영연맹(KSF) 기준기록을 두고 FINA 기록 통과자가 없으면 KSF 기록 통과 선수 중 상위 1명을 골라 이번 대회에 출전시켰다. 백수연은 여기에 해당했다.

백수연은 “흠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된다”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나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 안전 본오중에 재학 중이던 2005년 6월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이후 2012런던올림픽에서 유일한 여자평영 200m 준결승에 올라 대한민국 수영사에 이름을 새겼다. 지난 해까지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2013년 제94회 전국체전 여일

반 평영100m 결승경기에서 1분8초31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땀다. 현재 그의 경력은 메이저 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멈춰있다. 백수연은 2017년 부다페스트세계수영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에 가지 못했다. 백수연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결승진출이 목표”라고 말하는 이유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열심히 싸운 수구 ‘아름다운 퇴장’

남녀 대표팀 오늘 오전 최종 순위 결정전

강풍과 빗줄기를 뚫고 열심히 싸웠다. 선수들은 월등한 기량 차에도 기죽지 않고 약척같이 달려들며 투혼과 열정을 발휘했다. 관중은 환호로 답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힘겹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남·여 수구대표팀이 각각 크로스오버 매치(13-16 순위결정전)에서 패배해 이제 최종전(15-16위 결정전)을 앞두고 있다.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은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수구 크로스오버매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26으로 석패했다.

이날 3패로 B조 4위를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은 A조 4위인 남아공과 만났다. 대표팀은 경기시작 14초 만에 남아공에 첫 골을 내줬다.

1라운드 초반 경기 운영 미숙을 드러내며 잇따라 남아공에 끌려다녔고 3분 사이 3골이나 허용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1라운드 3분8초 여고생 에이스 경다솔(강원체고 3년)이 해결사로 나섰다. 상대의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그는 지체 없이 왼손 슈팅을 날리며 지난 러시아전과 캐나다전에 이어 3경기 연속 골이자 경기 첫 골

을 뽑아냈다. 한국 대표팀은 3-26으로 졌지만 2차전 러시아전 1골, 3차전 캐나다전 2골에 이어 남아공전에서 3골을 뽑아내며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자수구 대표팀은 22일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쿠바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수구 15·16위 결정전을 치른다.

한국 남자수구대표팀도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강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승리를 노렸지만 4-17로 패했다. 이날 한국은 슈팅 수(30개)에서는 카자흐스탄(32개)과 대등했다. 하지만 골 결정력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카자흐스탄은 32개 슈팅 중 28개(87.5%)를 우리의 골문 안쪽으로 연결했다. 반면 한국의 유효 슈팅은 17개(56.6%)에 그쳤다.

한국 남자수구 대표팀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뉴질랜드를 상대로 사상 첫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승을 노린다. 남자수구 대표팀은 23일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뉴질랜드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수구 15·16위 결정전을 치른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이용섭 시장 ‘성공 개최’ FINA 감사패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INA갈라 행사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FINA 감사패를 이용섭(사진) 광주시장 겸 조직위원장에 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광주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한국 정부와 광주시, 조직위와 자원봉사자 모두 감사와 진정인정을 받

아 마땅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한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이미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광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도시 광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싶고, ‘스포츠강국’ 대한민국이 되어 국제수영연맹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40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